

# 월악산국립공원 자연관찰로 조성사례 및 이용객 행태

## Visito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to Use and Construction of Nature Trail in Woraksan National Park, Korea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관리사무소  
김종완 · 윤덕구 · 허영범 · 이배근 · 이현태

### I. 연구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환경교육의 터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자연자원 보존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산행을 통한 건강증진과 유희를 목적으로 한 탐방대상지로 이용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탐방로 및 계곡주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되어왔다. 이러한 무분별한 파괴를 막고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국립공원이 환경교육장으로서 역할 및 다양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조성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민들의 국립공원 탐방형태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발맞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탐방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관리의 거점이 되는 탐방안내소(visitor center)와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자연관찰로(nature trail)의 조성 및 자연해설프로그램운영을 전 공원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자연해설은 탐방객들에게 방문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관찰기회를 제공하고 그 특성 및 현상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이해 및 자연과 친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관찰로의 조성기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자연관찰로 조성과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주요내용

#### 1. 자연관찰로의 입지적 특성

월악산국립공원에는 만수계곡자연관찰로와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만수계곡자연관찰로는 풍부한 유량과 곳곳에 넓은 암반이 자리잡고 오염원이 전혀 없어 청정수를 유지하고 있는 3.5km에 달하는 계류를 중심으로 계류생태계와 삼림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자연관찰로를 조성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계곡을 따라 순환하는 2km의 구간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는 그 형상이 닭이 서 있는 모습과 닭았다하여 계립령(鷄立嶺)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진 하늘재 옛길의 일부구간에 조성되었다. 하늘재는 백두대간의 중심능선이며 해발 525m로써 삼국시대인 서기156년 4월에 이 곳을 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려는 신라에 의해 처음으로 개척되었다. 조선시대의 문경새재가 뚫리기 전에 가장 오래된 고갯길로 삼국사기, 고려사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현재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옛 모습을 현재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오솔길이다.

자연관찰로는 입구마다 100~3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 관찰로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곳곳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해설판을 설치하여 자연해설시 나타날 수 있는 지루함을 최소화하였다. 두 곳 모두 완만한 경사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순환로로 이곳을 따라 걷다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 2. 인문·자연자원 현황

### (1) 인문자원

월악산은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서 생활문화와 교통로, 문화유적이 잘 발달된 지역이다. 월악산을 중심으로 분포된 문화재는 미륵리석불입상을 포함한 보물6점, 시도유형문화재 6점, 시도기념물 1점, 사적지 2곳 등이 있다.

### (2) 자연자원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를 포함한 만수계곡자연관찰로 및 월악산 인근의 자연자원은 자연이 가진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한 채 관리·보존되고 있다. 2002년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식물자원 779종과 동물자원 841종이 보고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과 337호인 망개나무군락지를 보유하고 있다.

### (3) 탐방객 현황

월악산국립공원은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60여만 명의 탐방객이 찾아왔는데, 그 중 40%이상이 여름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름 피서철에 계곡을 찾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월악산 등반이나 주변 문화재를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월악산 내에 조성된 자연관찰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수계곡자연관찰로를 찾는 탐방객이 년 간 10만명이 넘고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 입구인 미륵리에는 년 중 15만명에 달하는 탐방객들이 미륵사지문화유적지를 찾고 있어 하늘재관찰로로의 유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 3. 자연관찰로 조성사례 및 운영

### (1) 기획방법

만수계곡자연관찰로 및 하늘재역사·자연관찰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관찰로의 효율적인 선정 및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월악산관리사무소직원 5인, 자문위원 5인 및 여러 참여단체의 회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자연관찰로의 기본 노선은 문헌조사, 청문조사 및 전문단체의 자문을 받아 관찰로로서 적합한 2km 구간의 순환로로 선정하였으며 인근학교, 환경운동연합 등 생태전문가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연해설에 적합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자연해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한 역사·생태 해설판 및 각종 시설물을 제작하였다.

## (2) 도입시설현황

월악산 자연관찰로 조성공사는 공공근로사업 및 자체 시설물제작 등을 이용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높이고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도급시행 시설 및 안내판 사업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였다. 도급시행에서는 고정형 해설판 85개소, 이동식해설판10개소, 유도안내판 20개소, 목교량 8개소, 목재계단 1개소 30m, 목책 설치 150m이며 자체시행으로는 노면정비, 돌갈기, 쉼터조성 등 관찰로 동선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이디어 시설물로는 ‘어머니 품속 같은 흙’이라는 해설지점에는 흙의 단면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목재데크의 일부를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데크설치 구간과 비설치 구간에서 일어나는 식생의 변화관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눈으로 보는 숲’이라는 해설지점에는 높이에 따라 달리 보이는 숲을 직접 생물체가 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로 초입에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관찰로 코스를 미리 인지한 후 탐방할 수 있도록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 안내판은 자연관찰로 구간이 하나의 테마로 구성된 학습장임을 느낄 수 있게 구성하였다. 판형 및 양팔형 유도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원하는 관찰장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4. 탐방객 이용행태 분석

만수계곡자연관찰로를 이용한 탐방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2년간 만수계곡자연관찰로를 찾은 이용객은 총 17여만 명이었으며, 이 중 방명록 기재자들은 3,000명 정도였다. 이는 단체로 탐방한 경우 대표자 한 명이 기재하거나 방명록에 기재하지 않고 탐방을 마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 이용행태의 경우 충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거주자인 충북지역의 탐방객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높은 비율로 분석되었지만, 거의 모든 탐방객이 남·여 동행하여 오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방명록기재를 많이 하는 성인의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경우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년간 171회 6,539명의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북지역 뿐 아니라 경기, 서울에서도 학생들의 『자연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

한 점을 고려한다면, 20대 이하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탐방로의 이용경로는 친구나 동료를 통하여, 안내간판 등을 활용한 경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언론매체를 통한 경우는 낮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단체로 탐방하였고 가족단위로 탐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I. 결과 및 고찰

월악산국립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계곡으로 인해 자연이 주는 무한한 혜택을 탐방객에게 제공하는 천혜의 명승지로서 1984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월악산은 영봉을 중심으로 동서로 송계계곡과 용하구곡이 쌍벽을 이루면서 맑은 물과 넓은 암반, 천연수목과 다양한 동식물이 산과 계곡 등지에서 잘 어울려 있어 자연환경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최고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년 평균 72만 여명에 달하는 탐방객이 월악산국립공원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립공원 내 곳곳에서 자연의 훼손 및 자연자원의 소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휴식년제의 도입, 자연해설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원활동가교육 등 다양한 홍보와 활동으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더불어 실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이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데 자발적인 환경지킴이로서 앞장서는 것이 우선된 과제라 생각되어진다.

이런 이유로 일반 탐방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관찰로」를 조성하여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탐방객들에게는 자연과 문화의 소중한 가치와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자연해설프로그램운영은 우선, 자연환경과의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환경 속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을 지키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립공원의 중요한 관리목표이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자연자원의 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판단된다.